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선지자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나4장 1 - 11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를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마침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어 다시금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이방 선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한 망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에게, 이방 선원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후에 그 마음 속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1. 요나의 불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1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새사람이 된 니느웨 백성을 보고 선지자로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2절).

요나는 아직도 다시스로 도망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타당함과 부당함을 논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요나는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라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요나는 또다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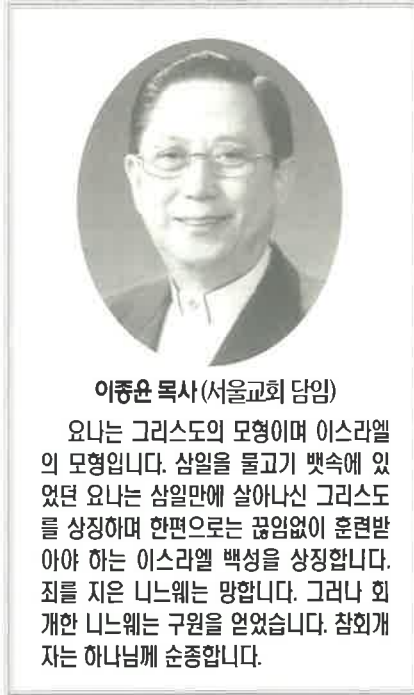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3절).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요구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죽어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도무지 언급할 수 없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간 것은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4절).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연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회개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받은바 은혜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순전한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요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삼일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니느웨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회개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만큼 요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기뻐하지는 않음과 더불어 니느웨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시면서 요나의 성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십니다.

(2)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옳으냐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가서 구경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 위에 박 넝쿨을 드리워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이튿날 박 넝쿨이 없어지자 요나는 화를 냅니다. 요나는 박 넝쿨이 시들었을 때 또 한 번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3)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요나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 사람에게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5절).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구경만 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행을 바라만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11절).

작은 박 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삼일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니느웨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회개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였던 요나에게는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고난주간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 9일(금)은 금식일로 선포 -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에는 우리교회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다.

특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9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한다.

금식헌금은 탈북 난민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4월4일(월)부터 10일(토)까지 새벽 5시 30분 부터 매일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말씀을 받고 국론의 분열과 조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와 우리교회가 이때에 지역 사회에는 등대 역할을 민족사회에는 구원선이 되며 세계 속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사역

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 기도를 한다.

금요일 밤 8시에는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고난주간 특별 연합 다락방 기도회를 갖는다. 셋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만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을 상고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교회와 민족 국가와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아뢰게 된다. 이번 주 금요일 교구별 모임과 다락방모임은 다락방별로 갖지 않고 고난주간 특별 금요기도회로 대체된다.

부활절(11일, 주일) 새벽예배는 5시에 드린다.

▶ 특별 새벽기도회 담당 교역자

| 요일 | 4일(주) | 5일(월) | 6일(화) | 7일(수) | 8일(목) | 9일(금) | 10일(토) |
|-------|--------|--------|--------|--------|--------|--------|--------|
| 담당교역자 | 이성득 목사 | 이규정 목사 | 김운호 목사 | 윤영국 목사 | 한상은 목사 | 오정식 목사 | 이용식 목사 |

북녘 동포에게도 복음을

4월10일(토) 오후 4시 하나원 방문 전도

탈북난민을 위해 디아스포라부를 설립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는 4월10일(토) 북한 공산 독재정권의 압제에 시달리다 탈북하여 중국등지에서 방황하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난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도 위문은 경기도에 소재한 하나원 분원에 입소한 탈북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도와 위문행

사를 갖게 된다. 이날 순서는 찬양과 경건회 그리고 식탁 교제 친교의 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울 남선교회와 루디아 여전도회가 수고하며 푸짐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

은 성도가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 받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4월 13일(화)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강사: 이성호 교수(연세대)

우리교회는 매년 교사로 임명받은 성도들이 양육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올해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는 4월13일(화)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게 되며 연세대학교 행정대의 부총장이신 이성호 교수(교육학과)를 강사로 모신다.

이성호 교수는 신촌 성결교회 장로로 시무중이며 교회교육에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분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금번 이성호 교수의 강의 역시 모든 교사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 제목은 "교육목표 수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다. 교회학교 모든 교사와 교회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한다.

2004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계속 접수 중

지난 3월29일(월) 2004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개강하였다.

대치동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입당한 후 성도와 이웃 주민을 위한 열린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는 서울성경대학과 주부대학, 살롬 경로대학이 4년째 접어든 올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며 많은 성도들의 깊은 배움의 열기 속에 첫 강의를 마쳤다.

총 10주간 계속되는 열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강의 들을 수 있는 문은 아직 열려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 등록 수강하여 더욱 성숙한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며 만민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며 등록비는 과목당 10,000원이다.

4.15 총선 투표장소로 교회당 개방

투표당일 102호실(미스바홀) 개방하기로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교회당을 개방하여 투표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는 우리교회는 이번 4.15 총선에도 교회당을 개방하여 투표장소로 사용토록 허락하기로 하였다.

4.15 총선에 개방되는 장소는 1층 102호 미스바홀과 화장실이며 투표당일 하루동안 개방하게 된다.

3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감지수 강나영 강석조 강창민 구경희 권수현 김나현 김나현 김덕수 김동진 김명숙 김명순 김무석 김미리 김성수 김성자 김세원 김수선 김수원 김영미 김영희 김옥희 김완성 김용식 김용환 김우원 김원경 김운선 김윤술 김운진 김이기 김재연 김재영 김정철 김종열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지호 김치영 김해영 김현구 김현모 나민지 나윤지 모영은 박경옥 박두용 박미진 박선우 박성미 박지희 박태웅 백영란 서동완 서영희 서예린 설영희 성규호 소선자 손휘령 심형섭 안인선 양현정 엄성용 엄영애 엄용현 엄하현 엄효천 엄효춘 여인란 염수희 오승연 원희숙 유경숙 유남근 유대운 유승순 유옥현 유진희 윤은숙 윤하영 이금식 이남성 이동운 이동재 이승석 이에린 이유진 이지선 이지혜 이종연 이홍성 이현승 이혜림 임 건 장승영 장지영 전성수 전성숙 정귀시 정동우 정병수 정석범 정선구 정우진 정재연 정태영 조가영 조경희 조무강 조미진 조선진 조운규 조윤희 조학준 조효정 지영순 최봉희 최연호 최운호 최을선 최재우 최중훈 최효명 한명희 한송이 한승희 한예정 하이운 홍성철 홍성철 홍중길 이상 133명

4월 행사 계획표

- 4. 3 (토) 육사 세례식
- 4. 4 (주) 새가족 환영회, 교육위원회
- 4. 7 (수) 학습, 세례식
- 4. 9 (금) 연합 다락방, 금식일
- 4.10 (토) 탈북자 위로 : 분당 하나원
- 4.11 (주) 부활주일 새벽예배 5시 낮 I, II, III 부 - 성찬식 부활절 찬양 (찬양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 4.13 (화)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 4.18 (주) 교구위원회
- 4.25 (주) 남선교회 헌신예배 자이툰 부대 위문 찬양위원회 구제헌금

금주의 상구

이 멜기세렉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히 7:1-2)

This Melchizedek was king of Salem and priest of God Most High. He met Abraham returning from the defeat of the kings and blessed him, and Abraham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First, his name means "king of righteousness"; then also, "king of Salem" means "king of peace."(NIV Hebrews 7:1-2)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스케치

진정한 회개가 부흥을 일으킨다

지난 3월29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회개은동과 부흥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25학기를 맞이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시작됐다. 매주 월요일마다 10주에 걸쳐 봄, 가을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는 첫날 약 300여명의 많은 목회자들이 등록하였다.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기 세미나의 목표는 회개와 부흥으로 이중운 목사님은 첫 시간 '시편 107편과 108편' 강해를 통하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건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 목사님은 강의 중에 특별히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회개 없는 소망이나 약속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도 회개라는 것이다. 목회자들도 회개를 통해 새로운 각성운동이 있어야 하며,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므로 성도들에게 늘 신실한 목회자가 되자고 하였다.

이어 2교시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박수암 교수님의 '초대교회 회개운동과 교회부흥'이라는 말씀이 계속 되었다. 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하며,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함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와 자기반성을 제시 하였다. 더불어 예배의 중요성 못지않게 교육의 중요성도 강

조했다.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를 알게 하고 생활에 실천하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미나는 봉사자들의 기쁘게 드리는 봉사가 있어 한층 은혜 가운데 진행 될 수 있었다. 식당에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권사회 소속의 권사님들, 식당에 들어서자 침이 꿀꺽 넘어가도록 맛있어 보이는 음식과 즐겁고 기쁜 표정에서 이분들의 연륜에서 오는 너그러움과 사랑을 금방 느꼈다. 이에 박경희 권사회 회장님은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모든 회원과 더불어 너무 감사하며 기쁘다고 말씀 하였다.

또한 넓은 웨스트민스터 홀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내까지 맡아 봉사 하신 안내원들의 밝은 미소가 아름다웠다. 세미나 시작 전과 후 아울러 중간 휴식 시간에 차와 빵으로 바쁘게 손을 움직였을 25학기 중 한 번도 봉사를 쉬지 않은 스마일 김명숙 권사님과 봉사자들도 있었다. 약 300여 명의 접수를 받으며 친절을 잃지 않는 접수처와 한 권 한 권의 책을 받듯이 친절하고 판매하는 서적팀 그리고 예쁜 한복을 입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봉사해 주신 여전도회원들과 찬양을 이끌어 주신 글로리아 찬양대원들, 또한 일찍부터 수고한 시설관리부와 차량봉사자들, 그외에 숨은 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유명희(편집부)



부활절 찬양극 해설

그림자들의 노래

김인재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2004년 부활절 찬양예배를 담당한 임마누엘 찬양대는 미국의 현존하는 교회음악 작곡자인 죠셉 마틴(Joseph Martin)의 부활절 칸타타 '그림자들의 노래'(Song of Shadows)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동부지역 중 하나인 North Carolina 주 태생인 마틴은 본래 대학에서 피아노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비롯한 많은 연주 경험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이며 교육자이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무려 400여 곡의 현대교회음악을 작곡하여 출판한 교회음악 작곡자로서 더 유명하다.

이번 부활절에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그림자들의 노래'는 이러한 그의 음악적 배경이 잘 내재되어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러 상황을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이었던 세상으로 대비시킨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면적으로 흐르는 '빛의 존재'를 어두움의 상징인 '그림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결국 밝은 빛만이 환하게 남는 마지막 곡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로 마무리된다.

이번 부활절 찬양은 바리톤의 곡 중 독창을 제외하고는 합창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르간과 피아노가 전체적인 음악적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삽입되는 내레이션이 이야기의 진행을 돕게 된다.

빛의 반대편에만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오랫동안 헤매었던 우리 모두의 해방의 감격, 감사의 고백이 이번 부활절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드러지기를 기도해 본다.



박은연권사(7교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이 죄인, 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제 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미련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저도 거듭거듭 감사하면서, 함께 했던 날들을 추억하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5년 전 이별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좋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날마다 새롭게 부여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하신 은총으로 남편이 숨 쉬던 학교로 돌아온 이후로, 때묻지 않고 순수한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늘 이야기하던 추수할 알곡들이요 제 십자가인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믿음의 분이 되고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출근하여, 아이들과 제가 함께 변화 받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곤 합니다.

너무도 가난에 찌든 아이들이 도울 길을 모색하며 학비와 중식 지원을 통해 작은 사랑을 나누고, 오랜 권유와 설득으로 교회등록을 한 아이가 찬양대에 서고 다음 학년에는 학급의 선교부장이 되어 있을 때의 기쁨이란!

매년 전도하는 기쁨과 사명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은혜 선생님이 담임이 되면 이제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 가정까지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에게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어려운 과학 과목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경말씀 이야기로 이해하도록 돕게 됩니다. 금년에는 3학년 생활지도를 맡게 되어 전보다 더욱 가까워서 학생들을 만나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며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먼저 믿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거저찌만한 믿음이 세파에 부딪히고 풍랑을 만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저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제 몸에 채우고 눈물로 이 길을 헤쳐 나가면서, 이제는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위의 것을 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학교에서 부활을 향해 나아갑니다.

천국시민양성 - 열린프로그램 시작하다

성도들의 배움의 열기 속에 개강된 2004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지난 3월 29일 월요일 새벽 이성득 목사가 담당한 롯기 반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2004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일제히 개강하였다.

2000년 말, 우리교회는 대치동세 에배당을 완공하여 입당을 한 후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입당 이듬해인 2001년부터 서울성경대학과 주부대학, 그리고 살롬경로대학을 개강하여 서

울교회 교인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모두에게 개방된 커리큘럼으로 준비하여 순례자와 주보를 통해 성도들에게 홍보하여 왔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어인 3년의 시간이 지났다. 3년 동안 열린 프로그램은 개방된 커리큘럼에 대한 낯설음과 인식부족, 개인의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초기 참석율이 낮아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는 올해부터 그동안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열린 프로그램이 확연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개강 전부터 문의가 계속되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며 배움에 대한 열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지난해보다 20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개강당일 40여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등록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도 나왔으며 한꺼번에 등록 신청서

를 가져가 9명의 친구(불신자 포함)들을 등록시킨 성도도 있었다.

또한 본인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강의를 듣기 위하여 2과목 이상 4과목까지 신청한 성도도 여럿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의 기도와 준비가 열매 맺는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 열매가 계속 풍성히 맺어지도록 더욱 깊이 있고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성도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교회 열린 프로그램이 성도와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기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아직 열린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망설이는 성도가 있다면 이 배움의 장을 확인하고 그 못에 자신도 한번 담가 봄이 좋을 것이다. 유테서(편집부)

“배우고 전하고 행하는 교회”



▶ 발성연습을 하는 찬양대 양성반

만민에게 전도

이미용 선교회

전용순 권사(이미용선교회회장, 12교구)

살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중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 발족하여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던 여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동명치매노인 복지회관과 빛과 사랑(장애인) 선교회를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9일부터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102호에서 성도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와 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기술진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천국일꾼양성

섬김의 고3 결연기도회

박승의 집사(고등부 교사)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손에 있느니라(예레미야 18:6)’

3월28일 10시40분 고3 결연기도회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기도 결연자들이 각자 결연되어 있는 학생 앞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각자 봉사기관이 달라 시간에 쫓기시면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 고3 친구들은 조금은 흥분되고 설레임에 얼굴들이 상기되어 있었다.

먼저 노문환 장로님의 1년간 고3들 영육이 강건하여 전 체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박경희 권사님의 취업을 위한 기도, 오광환 집사님의 진학을 위한 기도, 권혁우 집사님의 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도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고등부 선생님 소개와 각자 고3 결연자와 친교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은 앞날을 축복하심을 믿게 하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장로님들의 용기 있는 말씀과 권사님들의 따스한 손길, 집사님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대청부 선배들의 격려, 후배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순간순간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심으로 응답하시는 평강의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너무 기뻐 우리 친구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동안 웬지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졌던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평강의 주님, 저희가 기도 드리오니 저희가 무력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을 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월8일(목)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송간: 이영조 집사(11교구) 방음양회 권무이사로 승진
오전수 집사(1교구) 상공회소이사로 승진
- 최동규 집사(가브리엘 한양대 저회자) 수난청가모음 CD출시.
서적부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가격 5천원이다.
- 모세선교회는 필그림 산악회를 창립하고 오는 4월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창립 등반을 한다. 등반장소는 전남 광양 백운산이며 광양제철소 전학도 하게 된다. 출발은 12일(월)교회에서
- 이사: 오전수 집사(서정원 집사) (1교구) 501-0214
- 등녀: 오전혜(정철용) 성도 가정방문과라에서
- 주간 식당봉사: 한나여전도회(4월4일) 당회원(4월11일)
- 금주의 식사: 김성욱(윤운조) 성도 가정 · 교회보조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
|-----|--|
| T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 라디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주님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5. 4.15총선이 공명선거가 되어 바른 지도자, 비전있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 일 예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오후 2시 |
| 찬 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 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 |
| | II 부 오후 7시 |
| 금 요 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